



14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음 7월 25일) 제38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현 2길 6번지

도 “국토부와 손잡고 항소심서 승소”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1심 패소에

“새만금 개발 핵심 동력

예산 삭감 버금가는 위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손을 맞잡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건설교통국 도로공항공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총력 대응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천 기획조정실장은 1심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축소와 생태계 영향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계획 재량을 이탈했다”고 본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패소 판결에 무안 공항의 조류 충돌 등 지난번 대형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가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법원이 행정 절차 적법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 공항 반대 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 결정은 9월 말경으로 예상되나 전북도는 “집행정지가 가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에 대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과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권민호 건설교통국 도로공항공과장이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해보이겠다고 총력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비에 국토부와 협의,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하여 실시 계획 수립 및 착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선정 이래 중앙 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준비해 온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천 실장은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통화하여 항소 의지를 확인했으며, 지난 11일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대응 △

항소심 소송 보조참가 검토 △추진 중인 행정 절차 지속 △2026년 예산 정상 반영 등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분석하고,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와 사업 달성 공익을 더욱 보완·강화해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환경전문가, 전북자치도, 군산시 등을 망라하는 가정 ‘새만금 신공항 소송 협의체’를 구성, 더욱 정교한 대응 논리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번 1심 판결이 “새만금 개발 전반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현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에 준하는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과거 새만금 매립 면허 취소 소송의 승소 경험을 되살려, 도민과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함목소리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설득하며 공동 대응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명장(도자공예 분야) 진정옥 대표(사진 오른쪽)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자치도 명장 출신 첫 대한민국 명장 탄생

‘도자공예 분야’ 진정옥 대표

산업인력공단 주관 명장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장(도자공예 분야) 진정옥 대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출신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오른 첫 사례이자, 도자공예 분야에서 전북 출신 명장이 탄생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며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발전 및 후진 양성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영예로운 칭호다.

진정옥 대표는 고창 출신으로, 대학 시절 분청사기의 독창적 기법에 매료되어 도자공예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다. 2000년 대학 재학 중 도예공방 ‘봉강요(완주 소양 소재)’를 설립해 창작 활동을 이어왔으며, 수천 점의 사발을 제작하며 물레성형 기법에서 완숙함을 이루었다.

그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전북 도자기 기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2009년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이후 심사위원·평가위원 활동을 통해 후진 양성과 도예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도내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대한민국명장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최고 장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진정옥 대표는 “도예 분야에서 50대 초반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는 3040세대 도예가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특히 전북 직종에 종사하며 뛰어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발전 및 후진 양성에 기여한 숙련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영예로운 칭호다.

이어 “도예는 물질적 보상과는 거리가 먼 길이지만, 역사와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정진하는 도예가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40~50대에도 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후학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출신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것은 도내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우수 숙련기술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 제6회 지니포럼

25~26일 전주 라한호텔 · 전주대서 개최… 금융콘퍼런스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오는 25~26일 전주 라한호텔과 전주대학교에서 글로벌 금융·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제6회 지니포럼(GENIE Forum)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니포럼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제6회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The Nexus of AI & Fina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금융 전문가와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금융 트렌드와 AI 융합 기술의 미래를 논하게 된다.

행사는 25일 라한호텔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식에는 국내외 금융·경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지니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하며, 이어지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C)에서는 ‘AI를 활용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블랙록(BlackRock) 제럴드 가비 상무이사를 비롯해 알리안츠, 웰링턴,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사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뒤이어 열리는 DAF금융혁신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동욱(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장), 홍기훈(토스인사이트 소장) 등 국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청소년 금융 골든벨이 열려 청소년들이 금융 기초지식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후에는 금융 유튜브 영상화 LS 증권 이사와 오건영 신한은행 탐정이 나서는 ‘지니톡톡 금융토크콘서트’가 진행돼, 100세 시대 금융지식 쌓기, 고변동성 시대 생존 전략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을 다룬다.

이와 함께 대학생 대상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밋업, 청년층을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밋업, 금융·핀테크사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제금융컨퍼런스, DAF금융혁신세미나, 금융토크콘서트는 지니포럼 공식 홈페이지(www.genieforum.net)를 통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참가 또한 가능하다.

지니포럼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지니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따뜻한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축제 홈페이지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시

2025. 10. 09. (목)
- 10. 12. (일)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